



TQC 강화로 生産性 향상

朴 清 明 / 韓國TC電子(株) 社長

多事多難했던 83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은 안정된 기반 위에서 기업들이 오랜不景氣의 늪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도 많은 난관과 난제들이 기업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한해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景氣沈滯의 현상에서 서서히 발돋움하며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은 첫째, 각 기업들이 그간의 교육투자가 효과를 거두어 生産性提高에 크게 貢獻한 바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 회사의 경우 5년여의 Total QC의 교육으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능률은 작년 同期의 능률보다 42% 향상되었으며 1인당 생산고는 월 3,382弗에서 월 4,194弗로 뛰었습니다. 또 生産工具의 개선에서도 매월 80여종의 치공구 생산으로 전체 공장 내에 1萬여개의 치공구를 보급시켰습니다. 그 결과 Tester 생산의 경우 53명이 1일 450대를 생산하던 것이 현재는 50명이 1,200대를 생산하는가 하면 CB는 전년도에 57명이 1일 300대를 생산하던 것이 83년도에는 4명이나 적은 53명의 인원으로 1,000 대를 생산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결과는 그간의 교육의 종합적 효과라 볼 수 있으며 國際競爭力強化에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 발전의 原動力 구실을 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둘째, 部品의 품질이 점차 나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품업체가 꾸준한 技術開發과 新製品開發에 역점을 두어 그 토대 위에 서서히 정착되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노력을 계속하여야 되며 한시도 게을리하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모일간지의 논단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었습니다. 技能올림픽에서 5연패를 하고 세계를 제패한 우리나라가 얼마 쓰지도 않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어 못 쓰게 되니 尖端技術 운운하는 기업들이 수도꼭지 하나 제대로 정직하게 만들지 못해 서야 되겠는가 하는 精髓를 찌르는 글을 읽고 우리 電子製品에서도 그 같은 제품이 없나 걱정이 되었고 기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외국 기업에서는 不良品을 찾아 고발하는 고객에게 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면서까지 완전에 완전을 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어서 안타까우나, 이것 또한 우리나라 工業發展을 위해 당연히 겪어야 될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製品生産에 임하는 기업가나 기능인들의 기본 자세부터 다시 검토되

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의 간단한 물건이라도 같은 값이면 세계 제일의 물건을 만들어 내겠다는 바른 자세와 굳은 信念, 그리고 끝없는 노력을 경주하여야만 비로소 「Made in Korea」가 세계 제일이라는 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국력의 伸張이요 기업의 발전이며 나아가서는 선진국 대열에 한발 다가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難關難題는 첫째, 素材産業이 경쟁 대상국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原材料를 외국에 의존하게 되므로 適期供給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둘째, 끝없는 임금 인상의 요청입니다. 선진국 대열에 끼어 들 수 있는 문턱까지 왔다든가 하는 일부 이야기들과 結付하여 볼때 현재 우리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 일본에 비해 약 1/3 미국에 비해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당연한 오망이라고 봅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생산성이 따르지 않는 임금 인상은 곧 物價上昇을 초래한다고 하는 뼈저린 과거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근로자 모두가 이 괴로움을 견디

어 내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세째, 기업의 組織이 뜻하지 않게 肥大해져서 기동력을 상실해 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급료보다도 職位를 더 중요하게 여겨 위를 향하는 강력한 욕망으로 기업들은 본의 아니게 새로운 部署를 만들어 직위를 보장해 준다거나 부서가 없는 직위를 盲目的으로 주기도 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직의 비대는 기업의 기동력 발휘에 큰 장애요인이 되며 기업 발전의 癌의要인으로 되거나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경영자들은 하루 빨리 심각해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摸索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외국인 기업진단가는 한

국 기업들이 안고 있는 최대의 난제는 기업 조직의 비대증이라고 서슴없이 갈파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 기업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의 작은 아픔을 참지 못하면 내일의 큰 苦痛을 어떻게 막아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째, 부품의 국산화가 아직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電子技術은 항상 시간을 다투는 것이므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부품을 즉시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품이 국산화되지 못하고 외국에서 수입하여 들여올 때 그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競爭力을 잃어가는 것은 너무도 빠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품의 국산화율의 제고는 기술이 발전하는데 先決條件이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부품업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앞으로의 지원에 기대하는 바 크지만 부품업체에서도 당국의 지원에 발맞추어 기술 혁신에 의한 새로운 부품의 개발과 品質 向上에 가일층의 노력이 필요하며 Set Maker 또한 부품업체에 대한 협력 방향을 명실공히 긴밀하게 정립해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中小企業系列化 促進法이 시행되어 있으므로 모기업과 수급기업은 모두 이 법의 기본정신을 잘 이해하여 참다운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傾注해야겠습니다.

